제 14 장 노장(老莊): 소통과 자발적 복종의 정치학

1. 소통(疏通)의 철학자, 장자(莊子)

1) 우리는 기본적으로 막혀 있는 존재이다.

◇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 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且女獨不聞邪?** 昔者海鳥止於魯郊, 魯侯御而觴之于廟, **奏九韶以爲樂**, 具太牢以爲膳. 鳥乃眩視憂悲, 不敢食一臠, 不敢飮一杯, 三日而死. 此以己養養鳥也, 非以鳥養養鳥也. 장자(莊子) 「지락(**至樂**)」)

→ 위 에피소드의 묘미는 노나라 임금이 바닷새를 사랑했다는 것을 음미하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바닷새도 죽이지 않고 이 새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숙고하면 우리는 장자(莊子, BC369~BC 289?) 사유의 속내로 어렵지 않게 들어가게 된다. 장자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공동체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2) 터버려라, 그리고 연결하라!

◇ 안회가 말했다. "제가 심재를 실천하기 전에는 안회라는 자의식이 실재처럼 존재했었지만, 심재를 실천하자 자의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움[虛]'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이제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네가 위나라에 들어가 그 새장 안에서 노닐 때, 이름 같은 데에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받아 주거든 유세하고, 받아주지 않거든 멈추어라. 문도 없애고 언덕도 없애서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부득이(不得已) 한 일에만 깃든다면 괜찮을 것이다. (…) 너는 날개가 있는 것이 난다는 것을 들어보았겠지만, 날개가 없이 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앎으로써 안다는 것은 들어보았겠지만, 알지 못함으로써 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顔回曰, "回之未始得使, 實有回也. 得使之也, 未始有回也. 可謂虛乎?" 夫子曰, "盡矣. 吾語若! 若能入遊其樊而无感其名. 入則鳴, 不入則止. 无門无毒, **一宅而寓於不得已**, 則幾矣. (…) 聞以有翼飛者矣. 未聞以无翼飛者也. 聞以有知知者矣, 未聞以无知知者也."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

→ 장자가 선입견이나 자의식을 비우라고 했던 것은, 이것이 결국 타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의식을 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의식을 비웠던 이유는 타자와 잘 관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통(疏通)은 선입견을 '터버리고[疏]' 타자와 '연결하라[通]'는 장자의 희망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이것이 장자가 날개 없이 날 수 있다고 비유했던 이유이다.

2. 자발적 복종의 정치철학, 노자(老子)

1) 도(盜)와 도(盜) 사이의 거리

◇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어서 큰 도(道)를 걸어가려고 하는 경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나쁜 길로 드는 것이다. 큰 도는 매우 평탄하지만, 백성들은 작은 길만을 좋아한다. 조정에는 사람이 없고 밭은 황폐하고 창고는 비었는데도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검을 차고 배부르도록 먹어도 재산이 남는다면, 이런 경우를 도(盜)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盜)를 자랑하는 것은 도(道)가 아니다.(使我介有知也, **行於大道**, 唯**迤**是畏. 大道甚夷, 民甚好徑. 朝甚除, 田甚蕪, 倉甚虛, 服文綵, 帶利劍, 厭食而資財有餘. 是謂盜**夸**. 盜夸, 非道也哉! 帛書本 16 장; 王弼本 53 장)

→ 도(盜)는 수탈 대상자에게 어떤 재분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자(老子, ?~?)에 따르면 군주가 수탈만 일삼고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그는 도둑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탈한 것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경우에만 군주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도(盜)와 도(道)는 모두 'Tao'라고 읽힌다. 노자는 지금 말장난을 통해서 도(道)가 수탈과 재분배 사이의 무한한 교환 관계라고 역설한다.

2) 군주에게만 알려준 통치의 비밀

◇ 오므라들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펴주어야만 한다.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주어야만 한다. 제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높여야만 한다. 빼앗으려고 한다면 먼저 반드시 주어야만 한다. 이것을 '미묘한 밝음[微明]'이라고 한다. 유연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이로운 도구는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將欲翕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强之. 將欲去之, 必固擧之. 將欲奪之, 必固予之. 是謂微明. 柔弱勝剛. **魚不可脫於淵**, **邦利器不可以示人**. 帛書本 80 장; 王弼本 36 장)

→ 노자의 정치철학은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어야만 한다"는 구절에 응축되어 있다. 군주가 재분배하는 이유는 그 이상으로 다시 수탈하기 위해서이다. 노자는 이것을 미명(微明)이라고 표현한다. 수탈과 재분배의 도는 피통치자에게는 '은미해야[微]' 하지만, 통치자에게는 '분명한[明]' 것이어야만 한기 때문이다. 결국 피통치자는 군주의 재분배가 그 이상의 수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고, 통치자는 자신의 재분배가 그 이상의 수탈을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자는 통치자의 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피통치자는 통치자의 은혜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덕(德)이란 개념이 '피통치자의 마음[心]을 얻는[得]' 군주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마 엔 터 a d o